

# 바로의 장자 심판 예고 단락(출 4:21-23)과 연결하여 본 출애굽기 4장 24-26절의 신학적 해석

주은평(성결대)

---

## 1. 들어가는 말

### 1) 연구 배경

출애굽기 3장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는 80살 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노력이 나온다. 모세의 끈질긴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집요하게 설득하고 사명을 촉구하여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한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애굽을 향해 가던 중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찾으신다(출 4:24). 우리는 갑작스러운 반전에 당황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어렵게 모세를 설득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순종하며 애굽을 향해 가는데 왜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더 놀라운 장면은 그를 죽이려고 찾는 여호와 앞에서 십보라의 행동이다. 십보라는 그를 죽이려는 원인을 알고 있듯이 돌칼을 취하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 그 포피를 그의 발에 갖다 댄다. 이때 십보라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www.kci.go.kr

신랑이로다” 고백한다. 그러자 모세를 죽이려던 여호와께서 떠나가시고 심판의 위기가 해소된다.

본고는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하신 대상을 모세로 특정하지 않는다. 히브리 본문은 모세를 특정하여 지칭하는 대신 ‘그를 죽이려고 찾으셨다’고 표현한다. ‘그를’이라는 3인칭 남성 대명사로만 언급한다. 만일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셨다면 어떤 이유와 설명이 첨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설명도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 구절인 출애굽기 4장 21-23절에서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는 예고가 있고 바로 이어 ‘그를’ 죽이려고 찾으시는 여호와의 모습이 기술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두 단락(4:21-23, 4:24-26)을 각기 분리된 내러티브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두 단락을 “장자 심판 모티브”로 보면 서로 연결하여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애굽기 4장 21-26절을 “장자 심판 모티브”로 서로 연결된 하나의 플롯<sup>1</sup>으로 보고 탐구하려고 한다.

## 2) 연구 목적 및 방법

출애굽기 4장 21-26절을 “장자 심판 모티브”를 근거하여 서로가 연결된 하나의 플롯으로 탐구하려는 목적은 출 4:24에서 3인칭 남성 대명사로 언급된 ‘그’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죽이려는 공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여야 십보라의 할례 시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한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나의 피 신랑입니다”라고 고백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

1 Simon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Shaffield: Almond Press, 1989), 93. 내러티브와 플롯의 차이점은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시간순서 안에서 배열하는 사건의 구성이고 정리된 체계로 끊임없는 사건의 연속성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플롯은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의미 있는 상호 연결로 일련의 사건을 구성한 것을 말한다.

출애굽기 4장 18-31절의 단락 구성은 전후 문맥 흐름에 있어 상호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각 구절의 의미 파악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종 정경으로 주어진 본문 18-31절을 기-승-전-결로 구성된 한 단락의 플롯으로 보고 저자가 의도한 서사적 장치와 전략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다. 본문의 서사 구조 속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장치인 ‘장자 심판 모티브’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여호와와 주권’ 메시지를 탐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문제제기)에서 모세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심과 결(마무리)에서 애굽에 도착한 모세의 임무 수행이라는 인과관계로 연결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하심’으로 마무리 되는 연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문의 서사 구성의 특성을 통해 본문을 탐구하는 서사 비평방법이 가장 타당한 탐구 방법으로 여겨진다.<sup>2</sup> 서사 비평방법은 문학 비평방법론에 속하는 비평방법론으로 문학비평은 본문을 문학적 작품으로 보고 문학적 요소인 이야기 구조, 문체, 상징, 은유 등과 문법적 요소를 분석하여 그 수사학적 특징을 통해 본문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출애굽기 4장 24-26절을 텍스트의 서사 구조,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등장인물 등을 통해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24-26절을 통해 바로 앞에 위치한 ‘바로의 장자 심판 예고’(출 4:21-23) 단락과 연결하여 볼 수 있는 새로운

2    마크 알렌 포웰, 「문학비평이란 무엇인가?」 (이종록 옮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93), 29-31. 원제는 Mark Allan Powell, *What is Narrative Criticism?*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문학비평은 텍스트의 언어, 구조, 주제, 상징, 문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반면 서사 비평은 문학 비평방법에 속하지만 이야기 구조와 서사 기법에 집중한다. 서사 비평은 작품의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시간의 흐름, 인물의 시점, 플롯의 전개, 이야기 속에서 사용된 서사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춘다. 서사 구조는 이야기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서술자(나레이터)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목소리로, 시간성은 이야기의 시간적 흐름과 순서로, 공간성은 공간적 배경이 주는 상징적 의미로, 플롯은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전개되는지, 캐릭터는 등장인물의 역할과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서사 비평의 문학적 상호 연결의 관점으로 보면 21-23절과 24-26절은 각기 분리된 내러티브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문학 구조 속에서 '여호와와의 주권'과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의 중요성'이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출 4:18-31절의 단락 구성의 의도와 그 속에 담긴 신학적 함의를 새로운 통찰로 제시하고자 한다.

## 2. 본론

본 연구의 논쟁점은 출애굽기 4장 21-23절과 24-26절을 각기 독립된 단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연결된 단락으로 볼 것인가? 의 문제이다. 본고는 18-31절이 기-승-전-결로 전개되며 언급한 두 단락은 승-전으로 연결되고 있다. 기-승-전-결은 다른 표현으로 문제 제기-전개-전환-마무리를 의미한다. 1) 문제 제기는 18-20절로 미디안을 떠나기 전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하는 장면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나온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떠난다. 2) 전개는 21-23절로 바로의 '장자 심판 예고' 3) 전환은 24-26절로 여호와와 모세의 '장자 심판 적용'과 십보라의 할례 시행 4) 마무리는 27-31절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를 만나는 애굽에 도착한 모세로 구성되어 있다. 학자들은 다양한 단락 구조로 출애굽기 4:18-31절을 나누고 있다. 학자들의 단락 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야트(J.P. Hyatt)는 출애굽기 4장 18-31절까지를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라는 주제로 한 단락으로 구분한다. 이 단락 속에서 1) 18-23절을 '미디안을 떠나는 모세' 2) 24-26절을 '숙소에서 만난 사건'

3) 27-31절을 ‘모세와 아론의 만남’으로 단락을 구분한다.<sup>3</sup> 더햄(John I. Durham)도 18-31절을 ‘애굽으로 가는 구원자’라는 주제로 한 단락으로 구분하며 이 단락 속에 1)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18) 2)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또 다른 명령(19-23) 3) 여행 중 경험하는 무서운 이야기(24-26) 4) 아론과 광야에서의 상봉(27-29) 5) 모세와 아론의 애굽 도착(29-31)<sup>4</sup>으로 구분한다. 콜(R. Alan Cole)은 18-31절을 네 개의 소단락으로 구분한다. 1) 모세의 미디안 출발(18-20) 2)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21-23) 3) 모세, ‘피 신랑’(24-26) 4) 임무 시작(27-31).<sup>5</sup> 엔스(Peter Enns)는 이 내러티브를 세 개 소단락으로 나눈다. 1) 모세의 출발(18-23) 2) 노상에서 일어나 신비한 사건(24-26) 3) 모세와 아론의 만남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설명(27-31)<sup>6</sup>으로 분류한다.

학자들의 단락 구분을 종합하면 출애굽기 4장 18-31절을 한 단락으로 보지만 24-26절이 21-23절과 분리된 독립된 단락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본고는 기-승-전-결로 구성된 한 플롯 속에서 21-23절과 24-26절이 승-전 구조로 서로 연결된 구조로 보며 상호 연결의 요소와 그것이 주는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3 J. P. Hyatt, *Exodu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 Co., 1980), 84-88.

4 John I. Durham, *Exodu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7), 51-59.

5 R. Alan Cole, *Exodu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73), 76-80

6 Peter Enns, *Exodu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2000), 126-36.

## 1) 출애굽기 4장 21-23절의 본문 분석

### (1) 본문 개요

출애굽기 4장 21-23절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준 이적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여 백성을 보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다(21). 22절은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장자’라고 선포하라고 하신다. 23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에게 “내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어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고 하여도 보내기를 거절하니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라고 전하라는 명령이다. 더햄(John I. Durham)은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로 바로의 아들을 “너의 장자”라는 가혹한 칭호로 병행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sup>7</sup> 이 구절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장자’라는 사실이다. 바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는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요구를 거절한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불순종을 심판하신다. 그 방법은 바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다. 여호와의 장자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여긴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권이 바로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바로의 장자를 심판하시는 주권에 대해 바로가 저항할 방법은 없다. 여호와의 심판 앞에 바로의 무기력함이 그대로 나타난다.

### (2) 바로의 ‘장자 심판’의 의미

출애굽기 4장 21-23절에서 여호와께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장자’라는 사실이다. 구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 구절에

---

7 Durham, 윗글, 56.

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와의 장자’라고 부르고 있다.<sup>8</sup>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 가운데 처음 태어난 아들로 비유된 ‘여호와와의 장자’<sup>9</sup> 나라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여호와와의 장자’를 자신의 노예로 잡고 놔주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잘못된 왕권 의식을 바로잡으려고 하신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유이고 여호와를 섬겨야 하며 여호와의 뜻에 바로는 순종하여야 하는 것을 바로에게 알려 주시고자 하신다. 바로는 여호와의 뜻을 부정한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의 나라를 위한 노예들이며 자신을 섬기고 자기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잘못된 왕권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바로의 장자를 죽이실 것이다. 여호와와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 자신의 소유로 잡고 있기에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장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장자 심판’이라는 도구로 ‘여호와의 주권’을 바로에게 인식시킨다.

여호와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바로가 장자를 상실하면 고통스러워 하고 슬퍼하듯이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노역으로 고통하며 부르짖는 장자 이스라엘의 고통에 고통스러워 하시며 슬퍼하신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성이 함축되어 있다.<sup>10</sup>

8 Hyatt, 윗글, 85. 렘 31:9에 “...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로 에브라임을 장자로 언급한다.

9 Douglas K. Stuart, *Exodu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6), 145-46. 고대 세계에서 장자에게는 특별한 상속을 받는 특혜가 있다. 아버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고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였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결혼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졌고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여겨졌다.

10 Terence E. Fretheim, *Exodu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1), 77.

## 2) 출애굽기 4장 24-26절의 분석

### (1) 본문 개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24절의 주어를 모세로 언급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로 번역한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24절에는 모세의 이름이 언급돼 있지 않다. 24b에서 여호와께서 죽이려 하시는 대상을 3인칭 남성 대명사로만 지칭한다. וַיִּפְגְּשֵׁהוּ(와 이일게쉐후/그를 만났다)와 וַיִּבְרַח אֵת מֹשֶׁה וַיִּפְגְּשֵׁהוּ(와예바퀘쉬 하미토/그를 찾아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문제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 모세로 명시한 주어와 동격인 ‘그를’이라는 대명사가 동일한 인물인 모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sup>11</sup> 이 단락에서 의문점은 여호와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셨는지와 십보라가 누구에게 할례를 행했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가? 이다.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했다면 이 할례를 받은 아들은 누구일까? 20절에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에서 모세가 미디안을 떠날 때 분명 וַיֵּצֵא אֹתָם(웨에트 바나이브/아들들과 함께) 떠났다고 기록한다.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아들을 특정할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24절에서 언급하는 ‘그를’ 죽이려고 하신 심판 원인과 24-26절이 주려는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할례받은 아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문맥 속에서는 단지 저자가 제시한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심판 의도’는

11 김진명, “출애굽기 4장 24-26절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인가?”, 「구약논단」 74집 (2019년 12월), 253-281. 출 4:24-26에 대한 MT, LXX, SP 본문을 비교하며 각 책에서 다른 관점에서 제시되는 인칭 대명사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다. MT는 모세를 LXX는 게르숨을 SP는 십보라를 인칭대명사를 지칭하는 대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나오는데 심판의 원인은 명시되지 않고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 결과적으로 심판이 취소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심판의 원인을 찾는다면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24-26절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십보라가 갑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 ‘당신은 나의 피 신랑이로다’라는 고백으로 해결된다. 저자는 플롯의 전개에서 있어 ‘장자 심판 모티브’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사건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21-23절에 이어 24-26절에서 ‘심판 모티브’를 제시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한 후 갈등을 해소시킴으로 ‘할례 언약’에 대한 불순종을 인과적 갈등 요인으로 보게 한다. ‘그를’ 죽이려는 심판의 절정의 순간에서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행위로 전환되며 할례를 행한 포피로 그의 발에 대며 ‘당신은 나의 피 신랑’이라는 고백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 문제의 원인이 할례에 있는가? 를 의문하는 독자들에게 화자(나레이터)가 ‘그를’ 놓아주신 이유를 ‘할례 때문이었다’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정리하자면 저자가 21-23에서 24-26절로 연결 장치로 ‘장자 심판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고 ‘할례 언약’이라는 전략적 주제를 사용하여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할례 수행’이라는 ‘순종’에 따른 ‘심판 해소’라는 전개를 통해 ‘여호와의 주권’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 (2) 모세 가정의 ‘할례 시행’에 대한 불순종

모세를 선택하시어 출애굽 사명을 부여하시고 24-26절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죽어야 할 심각한 죄악이 설명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본문에서 모세의 잘못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할례”이다. 만일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를 알 수 없

www.kci.go.kr

다. 베스터만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할례로 도장을 찍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만들어졌다”고 표현한다.<sup>12</sup> 할례는 이 언약의 표징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의식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대대에 지켜야 할 약속이다. 그러나 모세는 아들의 무할례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알려 준다. 본인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킨 분명한 원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할례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모세가 비록 십보라와 장인 이드로와 함께 미디안 땅에 거주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용인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3) 심판 대상에 대한 논란

#### (1) 심판 대상, 모세

24-26절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심판 대상을 ‘모세’로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에 대해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다.<sup>13</sup> 이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이론을 제기한다. 마틴 노스(Martin North)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공격하신 것은 악마적 요소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본래 지역 설화에 나타나는 악마의 행위를 (차용하여) 여호와의 행위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sup>14</sup> 그리고 십보라가 ‘피 신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할례 때문이

12 윗글, 261.

13 모세를 죽이려는 주체를 MT에서는 “여호와”로 LXX역에는 “주의 천사” 앙겔로스 큐리우(ἄγγελος κυρίου)로 기록하고 있다.

14 Martin North, *Exodus a Comment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49-

었다’는 말을 사용하기 위한 통례적 용어였다는 것이다. 노스는 ‘피 신랑’이라는 표현이 할례 후 전통 관습처럼 사용한 표현이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up>15</sup> 노스가 언급하는 십보라가 행한 할례는 당시 악마의 공격을 막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 할례 풍습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노스의 견해와 같이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대 당시의 ‘액막이 풍습’인 ‘할례 의식’을 행했고 우연히 그것이 모세를 살리는데 적중했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나의 피 신랑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악마를 막으려고 우연히 대처가 행위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의도된 행동으로 여겨진다. 오토 카이저(Otto Kaiser)도 ‘피 신랑’ 표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목적 없는 공식에 의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주장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그녀가 말하기를”이 아니라 “이르기를”이라는 공식 인용 관용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6</sup> 더글라스 스투어트(Douglas K. Stuart)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공격하신 이유는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세의 무할례에 대해 두 가지

50.

- 15 윗글. 그는 고대에 의미했던 할례의 의미와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할례의 의미를 구분하여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할례의 의미가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고대 당시에 ‘피 신랑’은 할례와 결혼의 연결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밤의 악마의 위협을 막아내는 액막이 행동으로 할례를 이해했다는 것이다. 십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여호와의 공격에 대안이 없어 당시에 가장 신성시한 돌칼로 할례를 수행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하며 당시에는 돌칼이 현대 개념과 같이 어떤 도구의 개념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십보라는 자기 보호 본능으로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신성한 행위(여호와와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막아내는 행동)인 돌칼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다. 노스가 의문시하는 것은 그 할례의 대상이 왜 아들이었느냐에 대한 답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전승의 원자료에는 성인 할례를 다루고 있지만 유아 할례가 후대에 풍습화되면서 모세의 아들의 할례가 전승에 들어 온 것 같다고 한다.
- 16 Otto Kaiser, “Deus Absconditus and Deus Revelatus”, David Penchansky and Paul L. Redditt (ed.), *Shall Not the Judge of all the Earth Do What Is Right?* (Eisenbruns: Winona Lake, 2000), 84.

가능성을 제기한다.<sup>17</sup> 첫째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바로에 의해 이스라엘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 있을 때라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 울음소리로 인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성장해서 애굽식 할례를 받았더라도 그 할례는 애굽 방식의 부분적 할례로 여호수아 5장 9절에 “애굽의 수치”로 언급될 만큼의 잘못된 방식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sup>18</sup> 두 경우 모두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정하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논자는 모세가 부모에 의해 할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십보라가 아들에게 행한 할례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댄 행위가 모세가 할례받지 않은 것에 대한 아들의 대속적 할례 행위라고 주장하는 Robinson의 견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sup>19</sup> 24-26절 본문은 모세의 할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이다.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는 그 자식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자식 또한 그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금지한다(신 24:16).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지 않다. 24절에 나오는 3인칭 남성 대명사를 모세로 확정할 경우, 그가 죽어야 할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모세가

17 Stuart, 윗글, 153-54.

18 윗글. Stuart는 모세가 게르숨에게 할례를 행했더라도 애굽 방식의 할례를 했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잘못으로 본다. 또한 출애굽 사명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며 거절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19 Robinson, “Zipporah th the Rescue: a Contextual Study of Ex. 4:24-26”, *Vetus Testamentum*, XXXVI, 4 (1986), 456-7.

아들에게 시행해야 하는 ‘할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있다고 보며 21-23절을 연결하는 ‘장자 심판 모티브’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대상은 장자로 보인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여야 할 분명한 이유나 추정할 단서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2) 심판대상, 아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창세기 17장 14절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본문을 근거하여 아담 J. 하웰(Adam J. Howell)은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가 아닌 할례를 받지 않은 아들 게르숨을 죽이려고 하셨다고 주장한다.<sup>20</sup> 게르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유대인의 미드라쉬에서는 장인 이드로의 반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전승을 근거로 제시한다.<sup>21</sup> 카슈토(Cassuto) 또한 모세가 큰 아들 게르숨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게르숨을 죽이려고 하셨다고 주장한다.<sup>22</sup> 반면에 차일즈(B.S Childs)는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공격한 대상이 모세의 아들이 아닌 모세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 다음 절인 25절에 아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

---

20 Adam J. Howell, “The Firstborn Son of Moses as the “Relative of Blood” in Exodus 4:24-26”, *JOT* 35 (2010), 69-70.

21 Allen S. Maller, “The Bridegroom of Blood”, *Jewish Bible Quarterly* 21 (1993), 94. John T. Willis, *Yahweh and Moses in Conflict: The Role of Exodus 4:24-26 in the Book of Exodus* (New York: Peter Lang, 2010), 22-23. Jacob Neusner (ed), *The Components of the Rabbinic Documents From the Whole to the Parts* Vol. VIII, *South Florida Academic Commentary Series* no 80 (Atlanta: Scholars Press, 1997), 58-59. Chapter 45: Amalek 3에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십보라를 아내로 달라고 한다. 이드로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첫 아들을 낳으면 우상숭배자가 될 것이고 그는 하늘을 위해 일할 것이라는 조건이다. 모세는 이 조건에 동의하고 맹세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22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7), 59.

이라고 한다.<sup>23</sup> 차일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를 26절에서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수행한 행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25절과 26절은 분리할 수 없는 편집자의 의도가 있는 연결로 보이며 그 중심에 ‘할례’라는 중요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다. 이 행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할례 언약’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것은 18-31절의 서사 구조 속에서 21-23절과 24-26절에 묘사되는 캐릭터의 공통된 특징이 ‘불순종’이다. 바로의 ‘불순종’으로 인한 ‘바로의 장자 심판’과 모세의 ‘할례 언약’ 미준수라는 ‘불순종’으로 인한 ‘모세의 장자 심판’이라는 연결 장치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장자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이다.

#### 4) 출애굽기 4장 21-23절과 4장 24-26절의 연결고리

##### (1) 출애굽기 4장 18-31절의 구조 분석

출애굽기 4장 18-31절은 저자가 의도하는 문학 장치에 의해 기(문제제기)-승(전개)-전(전환)-결(마무리)의 서사 구조로 연결된 하나의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18-20절은 사명 감당을 위해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를 묘사한다. 이방 땅 미디안의 상징적 인물인 장인 이드로와의 작별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할례 언약을 준수하지 않아 아직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될 수 없는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떠나는 식구들이 언급된다. 2) 전개에 해당하는 21-23절에서는 바로의 ‘불순종’으로 인한 ‘장자 심판’이 언급된다. 이 단락과 연결하여 전환에서는 모세 가정의 ‘3인칭 남성 대명사’로 언급하는 ‘그를’ 죽

23 Brevard S. Childs, *Exodu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74), 98.

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온다. 전환에서 십보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댄으로 죽음의 위기가 끝난다. 전개에서 사용된 바로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그 대가로 ‘장자 심판’을 24-26절에서 3) **전환**으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할례 언약’의 ‘불순종’이 나타나며 바로의 ‘불순종’으로 인한 ‘장자 심판 모티브’와 연결해 볼 때 모세 가정에서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하신 ‘3인칭 남성 대명사’ “그”의 정체는 모세의 장자 게르숨으로 추정된다. 하나님은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모세에게 “당신의 이제부터 나의 피 신랑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할례 언약’을 계승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할례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의 신랑’이라는 고백이다. 이 ‘할례 의식’으로 모세와 두 아들 그리고 십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된다. 모세도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을 준수함으로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후 4) **마무리**에 해당하는 27-31에 드디어 출애굽 사명을 감당할 자격을 갖춘 모세가 애굽에 도착한다. **문제 제기**에서 모세의 이방 삶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미디안 이드로와 이별을 기술하고 **마무리**에서는 형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의 만남을 대조로 기술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할례 시행’이라는 사건이 중심에 위치하여 모세의 ‘할례 언약’ 이전의 삶에서 이후의 삶으로 전환되는 문학 구조를 이루고 있다.

### ① 전개(21-23절) 속의 플롯 전략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아들 가운데 장자이다. “내가 네게 이 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출 4:23). 23절은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 바로의 거절(“내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 하나님의 장자 심

www.kci.go.kr

판(“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로 명령-거절-심판 형식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바로에 대한 ‘장자 심판 예고’이다. 서사 비평적 관점으로 21-23절을 보면 바로의 ‘불순종’으로 인한 ‘장자 심판 예고’를 앞에 위치시키고 다음 단락인 24-26절에서 ‘장자 심판 실행’ 구조로 연결시키고 있다. 전개(21-23) 속의 심판 대상은 ‘네 아들’ ‘네 장자’로 언급된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시는 이유가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절이고 ‘불순종’으로 볼 수 있다. 심판의 원인이 ‘불순종’인 이 ‘심판 모티브’는 다음 연결 단락인 전환(24-26)에도 나타난다. 전환에서는 심판의 대상인 ‘그를 죽이려고 하신다’로 언급된다. 명확히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 심판의 원인도 명시되지 않는다. 그런데 심판 문제 해결자로 등장한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 그 포피를 그의 발에 대며 ‘당신은 나의 피 남편’이라는 고백으로 심판 문제가 해결된다. 26절에서 여호와와는 그를 놓아준다. 나레이터는 ‘피 신랑’이라는 고백이 ‘할례 때문이라고’ 명시한다. 25절에서 저자는 십보라가 포피를 뱀 - 그의 발에 갖다 댄 - ‘피 남편’이라고 고백함 이 세 가지 행위가 연속적 동작으로 이어진 행동으로 기술한다. 즉 어떤 한 가지 행위가 심판 해결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파악되는 ‘심판 문제의 원인’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할례’로 집중된다(25).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 ‘그를 죽이려는’ 심판을 실행하려 하신다(24). 십보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문제의 원인’을 해결한다. 그리고 포피를 그의 발에 대며 ‘피 신랑’이라는 고백을 통해 문제는 해결된다. 전개와 전환 단락은 ‘장자 심판 모티브’로 연결이 가능하다. 전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바로의 ‘장자’가 그 ‘심판 대상’이다. 이어지는 전개에서 ‘장자 심판 모티브’로 연결할 때 하나님의 아브

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 명령’에 ‘불순종’한 모세의 ‘장자’인 게르숨이 ‘장자 심판 실행’의 대상이 된다. 21-23절에서는 명령-거절-심판 형식으로 심판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24-26은 명령-거절 단계가 생략되고 바로 24절에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 심판으로 시작한다. 저자의 서사적 전략은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할례로 언약을 맺고 대대로 지키길 언약으로 명령하신 명령(창 17:14)을 상기하게 만드는 장치로 ‘하나님의 명령’을 ‘생략’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언약 준수 의무의 명령’이다. 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모세의 아들의 무할례로 증명이 된다. 그러므로 24-26절의 ‘장자 심판 모티브’는 명령-거부-심판의 과정 중 명령-거부 단계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서사 전략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사 전략은 명령-거부 단계를 생략한 것에 의문점을 가진 독자들에게 더 강력한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

21-23절 단락의 키워드는 22절의 **בְּנֵי בְּכֹרֵי** (베니 베코리/나의 아들, 나의 장자)이고 23절에서 **אֶת־בְּנֵי בְּכֹרֶךָ** (에트-빈카 베코레카/너의 아들, 너의 장자)가 대조를 이루는 병행어로 표현한다. 22절에서 사용된 키워드는 바로가 ‘봐주지 않고 잡고 있는’ 하나님의 ‘장자’인 ‘나의 아들, 나의 장자’이다. 23절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장자’와 상응하는 심판 대상인 바로의 아들을 ‘너의 아들, 너의 장자’라는 언어유희(word-play)로 문법적으로 평행법을 사용한다. 이 단락은 바로의 ‘장자 심판’을 모티브로 삼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을 메시지로 주고 있다. 프레데임은 이 단락에서 수사학적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한다.<sup>24</sup> 그 중심 질문은 출애굽기의 질문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질문이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24 Fretheim, *읽글*, 77.

## ② 전환(24-26절) 속의 플롯 전략

24절에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서 מַלְוֹן(말론/숙소)이라는 단어의 어간인 מַל와 26절에서 מוֹלָה(몰/할례)의 어간 이 병행을 이루는 언어유희(word play)로 사용되고 있다.<sup>25</sup> 문맥상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는 מַלְוֹן(말론/숙소)이 부각된다. 서사 비평 요소 가운데 ‘공간적 배경’인 숙소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숙소는 인간에게 외부적 위협과 공격에서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는 곳이다. 24절에서 그들이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위험은 숙소가 그들의 안식처나 보호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제공한다.

24-26절은 ‘할례’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메시지를 확장하고 있다. 23절에서 ‘바로와 장자를 죽일 것이다’에 사용된 동사는 הָרַג(하라그/죽이다)로 일반적인 살해를 의미한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에서 사용된 동사는 מוֹת(무트/죽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두 가지 동사의 차이는 24절에서 사용된 동사 מוֹת(무트/죽이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죽음으로 보게 한다.

25절에서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그 포피를 그의 발에 대며 “당신은 나의 피 신랑입니다”라고 말한다.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할 때 포피를 כָּרַח(카라흐/자르다)라는 동사는 언약을 맺을 때 ‘(희생 제물을) 자르다’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동사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한 ‘할례를 행하다’

---

25 Nahum M. Sarna, *Exploring Exodus: The Heritage of Biblical Israel* (New York: Schocken Books, 1986), 25.

는 동사는 **כָּרַת**가 아닌 **מוּל**이다(창 17:10-11). 25절에서 **מוּל**(몰/할례를 행하다)이라는 동사가 있음에도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동사 **כָּרַת**(카라트/자르다)를 사용하는 것은 십보라의 할례가 단순한 아들의 포피를 자르는 ‘할례’의 의미보다 대대로 지켜야 할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의 의미를 가진 **כָּרַת**(카라트/자르다)를 더 강조하려는 의도로 추정할 수 있다. 26절에서 화자(나레이터)는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후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나의 피 신랑입니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때’를 강조하는 시간 부사 **אָז**(아즈/그때)를 사용한다. 십보라가 할례로 인해 “당신은 나의 피 신랑입니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던 행위를 중지하시고 그들을 놔두고 떠나가신다. 카이저는 십보라의 고백이 할례 의식으로 인한 모세와 십보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sup>26</sup> 할례 이전은 십보라와 아들들과 모세와의 관계는 언약 밖의 관계였다면 할례 이후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보호받는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서사 비평 요소 가운데 ‘시간적 배경’이 있는데 24-26절에서 일어난 사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간은 모세가 미디안을 떠났지만 아직 애굽에 도착하기 전을 의미한다. 서사 구조 속에서 이 시간의 중요성은 모세가 아직 사명을 시작하기 전이라는 시점을 강조한다. ‘이스라엘의 일원’이며 ‘백성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행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정에 요구하신 것은 ‘할례 언약 준수’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할례’는 모세 개인 만의 문제가

26 Kaiser, *윗글*, 83-84. 카이저는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과 ‘피 신랑’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적 일원이 되었고 모세는 혈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한다. 브루크너, *윗글*, 54. 십보라의 고백은 “우리의 결혼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할례 언약에 의해 표시되었습니다.”로 의역될 수 있다고 한다.

아니라 모든 식구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의식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징이다. 또한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모세 가정의 ‘할례 언약 준수’를 통해 모세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모세의 아들에 대한 ‘할례’는 시간적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선제 요소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③ 문제제기(18-20절)와 마무리(27-31절)와의 연결

문제 제기 부분인 18-20절에서 각 절에 한 번씩 모두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מִצְרַיִם שָׁבוּ**(미즈라임 슈브/애굽으로 돌아가다)이다. 18절에서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한다. 20절에서는 화자(나레이터)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제기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이다. 20절은 동사 **לָחַץ**(라카/취하다)를 두 번 사용한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가 취한 것은 ‘아내와 아들들’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와 지팡이’이다. ‘아내와 아들들’은 시간적 배경으로 애굽에 도착하기 전, 전환부(24-26절)에서 극적인 반전을 보여 줄 중요한 등장인물들에 대한 암시로 보인다. ‘여호와와 지팡이’는 시간적 배경으로 애굽에 도착한 후 바로 앞에서 이적을 나타낼 중요한 도구로 암시한다. 문제 제기와 마무리와의 관계는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의 모습이 나타난다. 마무리(27-31절) 부분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29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כָּל-דְּבַרֵי**(콜 디브레이/모든 말씀)과 **כָּל-הָאֱתוֹת**(콜 하오토티/모든 그 이적)을 아론에게 말했다고 30절에 아론은 백성과 장로 앞에서 **הִתְדַבְּרִים**

כָּל (콜 하데바림/그 모든 말씀)을 전달했고 백성 앞에서 הָאֱלֹהִים (하오토트/그 이적)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며 사용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 여호와를 믿고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 마무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에 간 모세를 통해 나타날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모세의 사명을 강조하며 플롯이 마무리 된다. 저자는 플롯을 이루는 각 단락에서 ‘여호와의 주권’과 ‘순종’을 강조하며 플롯을 전개한다. 문제 시작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의 출발이 나온다. 전개에서는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심판’받는 바로의 ‘장자’를 예고한다. 전환에서는 ‘할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심판’받는 모세의 ‘장자’와 십보라의 ‘할례 시행 순종’ 이후 관계 회복이 나온다. 마무리로 백성과 장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달하라는 ‘모든 말씀’과 ‘그 이적’을 행한 후 백성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된다.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는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다.

## (2) ‘장자 심판 모티브’의 연속성

하웰은 출애굽기 4장 21-23절과 24-26절 두 구문이 ‘장자’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웰은 두 구문이 연결된 것으로 볼 때 21-23절에서 나오는 ‘장자’라는 주제와 24-26절에 나오는 모세의 ‘장자’가 연결되어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찾으신 ‘3인칭 남성 대명사’로 언급된 대상이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아들 ‘장자’ 게르숨이라고 한다.<sup>27</sup> 카

27 Howell, 윗글, 67.

슈토(U. Cassuto)는 4장 22-23절이 '바로의 장자'와 '여호와와의 장자'라는 키워드로 병행을 이루고 있고 다음 구절인 24-25절은 앞 단락의 '장자' 주제 언급과 연결하여 '장자'를 언급하는 구절들로 연결되고 있다고 한다.<sup>28</sup> 로빈슨(Bernard P. Robinson)은 4장 21-23절과 24-26절을 전후 문맥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삽입된 단락으로 보고 있다. 그가 삽입이라고 주장하는 두 단락(21-23, 24-26)을 생략하면 4장 20절에서 미디안을 떠나는 모세가 27절에서는 아론을 만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된다. 로빈슨의 주장에 의하면 삽입된 단락의 역할은 바로가 여호와를 무시하여 '장자'인 이스라엘을 학대하면 바로의 '장자'도 아버지의 죄악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며 모세도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을 파기했기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도 모세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연결한다.<sup>29</sup> 레한(Terry John Lehane)은 21-23절과 24-26절이 바로의 장자뿐 아니라 모세의 장자 게르솜으로 연결되어 있어 남성 대명사로 표현된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게르솜이라고 주장한다.<sup>30</sup>

많은 학자들은 출애굽기 4장 21-23절과 24-26절을 연결되지 않은 분리된 단락으로 보고 있다. 출애굽기 4장 21-23절은 바로를 심판하시겠다는 '심판 예고'로 보면 24-26절은 모세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적용'으로 기술로 볼 수 있다. 두 단락 모두 여호와의 주권에 도전하여 명령을 거부하여 '장자 심판'이라는 심판 모티브에 의한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 전후 문맥을 이러한 '심판 모티브'로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28 Cassuto, 윗글, 59. 24-25절에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찾으신 대상인 3인칭 남성 대명사로만 언급된 사람과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대상이 같은 대상으로 모세의 장자인 게르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9 Robinson, 윗글, 450-41.

30 Terry John Lehane, "Zipporah and the Passover", *Jewish Bible Quarterly* 24 (1996), 46-50.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  
 나님은 바로의 ‘장자’를 죽이려는 이유가 ‘장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25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본문에서 ‘3인칭 남성 대명사’로 언급되는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이유  
 를 21-23절과 연결하여 보면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이기 때  
 문이다. 애쉬비(Godfrey Ashby)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  
 아들여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된 관  
 계’로 들어가는 표시라고 한다.<sup>31</sup> 이것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의 주권’  
 에 대한 거부이고 ‘언약의 일원’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모세가 장자 게  
 르숨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행위이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  
 을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브라함  
 에게 명령하신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21-23절의 장자 심판 모티브로 볼 때 24-2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신앙의 원인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그를’ 죽이  
 려고 하셨다고 연결해 볼 수 있다. 또한 ‘장자 심판 모티브’로 연결하여  
 볼 때 바로의 죄로 바로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모세의  
 ‘불순종’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죄로 모세의 ‘장자’인 게르  
 슴을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병행으로 이루는 구조를 이루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21-23절은 ‘장자 심판 예고’이고 24-26절  
 은 ‘장자 심판 적용’이며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하신 대상은 모세가 아닌  
 모세의 장자 게르숨으로 보인다.

31 Godfrey Ashby, *Go Out and Meet God,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27.

### 3. 신학적 함의

#### 1) 여호와와의 주권 인식

여호와와의 주권은 21절에서 바로의 마음까지 다스리는 분으로 표현된다. 여호와께서는 주권으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바로에게 내리는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를 거부하며 그의 마음까지 완악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카쉴토는 중세 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는다고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함의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했다고 하면서 본문을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지의 관계성인 철학적 주제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sup>32</sup>

23절은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 구절은 여호와와의 주권을 강조하는 구절이다. וַיִּעֲבְדֵנִי (웨야아브테니/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는 ‘섬기다’의 의미와 함께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페틸(David Pettit)은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행위가 그의 지배권을 약화시키며 이스라엘로 자신을 향한 ‘섬김’을 약화시키고 결국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sup>33</sup> 바로는 이런 이유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락할 수 없었다. 여기서 하나님과 바로의 양보할 수 없는 주권이 충돌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여기시며 바로와 대결하시는데 바

32 Cassuto, 윗글, 55-56. 철학자들의 의문에 대해 카쉴토는 토라가 인간에게 철학적 가르침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의문점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며 전체 백성과 그것을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33 David Pettit, “When the Lord Seeks to Kill Moses: Reading Ex odus 4,24-26 in its Literary Context”, *JOT* 42.2 (2015), 166.

로의 어떠한 통제권도 허락하지 않으시며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sup>34</sup>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대결은 이스라엘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전투라고 할 수 있다. 이 전투에서 바로는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주권에 대항하고 버티지만 결국 완전히 패배를 인정하고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항복으로 대결은 종결된다. 일부 학자들은 열 가지 재앙을 애굽의 자연 환경과 과학적 추론에 근거한 현상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애굽의 장자와 처음 태어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어떤 가설과 추정도 제시하지 못한다.<sup>35</sup> 모세 또한 어떤 이유에서 건 장자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철저히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을 근거하여 백성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 2)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자격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할례’를 준행할 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고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을 준수하지 않아 장자 심판의 위기에 직면한 첫 번째 사례가 출애굽의 대표인 지도자 모세의 가정에서 나타난다.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에게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 ‘할례 언약’을 파기한

34 Moshe Greenberg, *Understanding Exodus* (New York: Behrman House, 1969), 166-67. 그린버그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요구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바로의 관점에서 자신의 왕좌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35 Greta Hort, “The Plagues of Egypt”, *ZAW* 69 (1957), 84-103; “The Plagues of Egypt II”, *ZAW* 90 (1958), 48-59; 김영혜, “열 가지 재앙 재고”, 『구약논단』 85집 (2022년 9월), 72-101.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행위를 언약을 깨는 행위로 간주하시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에서 끊으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sup>36</sup>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해 언약 준수의 필연성과 ‘언약 계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율례로 각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sup>37</sup> 출애굽의 지도자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바로를 만나거나 자신을 조력하여 입이 될 형 아론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 의식’을 준행하여 언약에 ‘순종’하며 시작된다. 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을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

#### 4. 결론

출애굽기 4장 18-31절은 기-승-전-결의 서사 구조로 구성된 한 개의 플롯이다. 그 가운데 21-31절은 전체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인 승(전개)에 해당한다. 21-23절은 여호와와의 주권과 바로의 주권 대립이 제시되어 여호와께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바로의 ‘장자’를 심판하시겠다는 ‘심판 예고’를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하신다.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의 ‘장자’라는 사

36 Matthew Thiessen, "The Text of Genesis 17:14", *JBL* 128 (2009), 625-642.

37 Enns, *읽기*, 134. Enns는 4.24-26에서 여호와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규례가 무엇 인지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실이다. 바로는 여호와와의 장자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며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절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권이 여호와와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의 '장자'를 죽이실 것이다. 이것은 '장자 심판'에 관한 예고이다. 다음으로 연결되어 '장자 심판' 적용이 바로 다음 단락인 24-26절로 연결된다. 24-26절에서 여호와와의 주권과 모세의 주권과 대립하는 서사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누구인지 언급이 없다. 그러나 언어적 요소로 추정이 가능하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 파기'에 해당하는 행동이다. 모세가 자신의 아들의 소유권을 여호와께 드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아들 장자를 '여호와와의 소유'로 여기신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여호와와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21-23절의 이스라엘이 '여호와와의 장자'라는 의미론적 암시는 다음 단락인 24-26절에서 모세의 장자인 게르숨의 '무할례'에 대한 소유권적 대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찾으시는 '3인칭 남성 대명사'를 게르숨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4-26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을 파기한 것으로 볼 때 모세를 심판하시는 것이며 심판 대상은 게르숨이다. 십보라는 바로의 '장자 심판 예고'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들을 공격하시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심판 대상자인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일이다. 24-26절에서 십보라가 아들에게 즉시 할례를 행하여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한다.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지만 언약 회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신분과 성별과 자격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준수하며 '여호와와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유지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21-23절은 '장자 심판 예고' 24-26절은 '장자 심판 적용'으로 연결된 서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서

사 구조 맥락으로 보면 ‘장자 심판 모티브’와 ‘여호와와의 주권’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근거하여 구성된 플롯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이 플롯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 출애굽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주권 아래에서 벗어나 여호와와의 주권 아래로 그 소유권이 변화되었음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지만 새로운 주권 아래에 귀속된다. 이것은 통치권 아래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와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할례’는 ‘여호와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언약적 순종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여호와와의 관계를 볼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와의 소유’와 ‘주권’ 아래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은 ‘여호와와의 주권’ 아래 통치받는 것이며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진명, “출애굽기 4장 24-26절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인가?”, 「구약논단」 74집 (2019년 12월), 253-281.
- 김영혜, “열 가지 재앙 재고”, 「구약논단」 85집 (2022년 9월), 72-101.
- 마크 알렌 포웰, 「문학비평이란 무엇인가?」 (이종록 옮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93), 원제는 Powell, Mark Allan, *What is Narrative Criticism?*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오원근, “오경의 정경적 관점으로 본 아브라함 언약 고찰”, 「구약논단」 61집 (2016년 9월), 41-75.
- Ashby, Godfrey, *Out and Meet God,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 Bar-Efrat, Simon, *Narrative Art in the Bible* (Shaffield: Almond Press, 1989).

- Brevard S. Childs, *Exodu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74).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7).
- Cole, R. Alan, *Exodu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73), 76-80
- Durham, John I., *Exodu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7).
- Enns, Peter, *Exodu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2000).
- Fretheim, Terence E., *Exodu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1).
- Greenberg, Moshe, *Understanding Exodus* (New York: Behrman House, 1969).
- Hort, Greta, "The Plagues of Egypt", *ZAW* 69 (1957), 84-103.
- \_\_\_\_\_, "The Plagues of Egypt II", *ZAW* 90 (1958), 48-59.
- Howell, Adam J., "The Firstborn Son of Moses as the "Relative of Blood" in Exodus 4.24-26",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5 (2010), 63-76.
- Hyatt, J. P., *Exodu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 Co., 1980).
- Kaiser, Otto, "Deus Absconditus and Deus Revelatus", David Penchansky and Paul L. Redditt (ed.), *Shall Not the Judge of all the Earth Do What Is Right?* (Eisenbruns: Winona Lake, 2000), 73-88.
- Lehane, Terry John, "Zipporah and the Passover", *Jewish Bible Quarterly* 24 (1996), 46-50.
- Maller, Allen S., "The Bridegroom of Blood", *Jewish Bible Quarterly* 21 (1993), 94-98.
- Neusner, Jacob (ed), *The Components of the Rabbinic Documents From the Whole to the Parts* Vol. VIII, *South Florida Academic Commentary Series* no 80 (Atlanta: Scholars Press, 1997).
- North, Martin, *Exodus a Comment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 Pettit, David, "When the Lord Seeks to Kill Moses: Reading Ex odus 4.24-26 in its Literary Contex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2.2 (2015), 163-177.
- Robinson, Bernard P., "Zipporah th the Rescue: a Contextual Study of Ex. 4:24-26", *Vetus Testamentum*, XXXVI, 4 (1986), 447-461.

- Sarna, Nahum M., *Exploring Exodus: The Heritage of Biblical Israel* (New York: Schocken Books, 1986)
- Shankman, Ray, "The Cut that Unites Word as Covenant in Exodus 4:24-26", *Cross Currents* (1991), 168-178.
- Stuart, Douglas K., *Exodu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6).
- Thiessen, Matthew, "The Text of Genesis 17:14",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8 (2009), 625-642.
- Westermann, Claus., *Genesis 12-36 A Commentary*, translated by John J. Scullion S.J. (Mi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 Willis, John T., *Yabweh and Moses in Conflict: The Role of Exodus 4:24-26 in the Book of Exodus* (New York: Peter Lang, 2010).

검색어

할례언약, 심판 모티브, 장자, 피의 신랑, 하나님의 주권

[ ABSTRACT ]

##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Exodus 4:24-26 in Connection with the Pronouncement of Judgment on Pharaoh's Firstborn (Exodus 4:21-23)

Eun-Pyung Ju  
Sungkyul University

Exodus 4:24-26 has long been a source of perplexity and debate among scholars. Previous studies have typically treated this passage as an independent unit, separate from the preceding verses (Exod 4:21-23). The main controversy has centered on whether YHWH intended to kill some male within Moses's household, despite Moses's obedience in heading toward Egypt as commanded by YHWH. In this perplexing scenario, Moses remains silent while Zipporah intervenes by circumcising her son, thereby resolving the crisis without further explanation or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ole of Exod 4:21-23 in relation to the subsequent passage. Traditionally, these verses have been interpreted independently; however, this research proposes that they should be read as a contiguous unit. These passages are contextually linked, despite mentioning different subjects of judgment. The overall structure unfolds a coherent narrative of divine judgment, progressing logically through stages of anticipation, development, climax, and resolution.

The author of Exodus appears to construct a contextual continuity, first presenting a forewarning of judgment on Pharaoh's firstborn based on a prior implication of judgment, followed by YHWH's intention to

www.kci.go.kr

kill an unnamed male member of Moses's household. The specific identity of this male is not clarified in the text, leading to numerous speculations and debates. However, understanding Exod 4:21-26 as a unified structure allows us to identify the male pronoun's referent more precisely.

This research seeks to connect the pronouncement of judgment on Pharaoh's firstborn in Exod 4:21-23 with the subsequent judgment on the male member of Moses's household in Exod 4:24-26. The commonality between these passages is the central theme of YHWH's firstborn judgment. Pharaoh faces judgment for refusing to release YHWH's firstborn, Israel, thereby resulting in the forewarning that Pharaoh's own firstborn would be killed. Similarly, the judgment on Moses's household arises from the failure to perform circumcision, thereby not recognizing YHWH's covenantal ownership. In both cases, the object of judgment is tied to the concept of the firstborn, reflecting the broader theological theme of divine ownership and covenant fidelity.

Circumcision, as a sign of the covenant, signifies the Israelites' acknowledgment of their belonging to YHWH. Moses's neglect in circumcising his son implicitly rejects YHWH's ownership, paralleling Pharaoh's actions. By viewing these passages as a single narrative unit, YHWH's attempt to kill the male figure in Moses's household serves as a direct application of the judgment principle previously outlined. Therefore, the threat to kill Moses's firstborn is an extension of the judgment theme.

Connecting these contextual elements, the passage indicates that while Exod 4:21-23 anticipates the judgment on Pharaoh's firstborn, Exod 4:24-26 applies this judgment principle to Moses's household, specifically targeting his firstborn, Gershom. The absence of Moses's name and the use of a male pronoun in the Hebrew text underline this interpretative possibility. This integrated approach reveals a coherent

structure progressing through stages of divine judgment.

In conclusion, the narrative structure of Exod 4:18-31 can be understood as a unified passage illustrating a divine firstborn judgment motif. The text connects the forewarning of judgment on Pharaoh's firstborn with the immediate application of judgment on Moses's household for covenantal disobedience. This linkage underscores the broader theological theme of recognizing YHWH's sovereignty and the consequences of covenantal breach, thereby providing a deeper insight into the passage's theological implications.

key words

Circumcision Covenant, Firstborn Son, Sovereignty of God,  
Blood Bridegroom, Judgment Motif

투고일: 2024년 07월 18일

심사일: 2024년 08월 12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8월 25일

www.kci.go.kr